

## ▶ 주제강연 2

## 사회교육에서의 생활과학의 과제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 승 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 우석대 교수

### I. 들어가며

생활과학(가정학)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공헌하는 학문으로서, 응용학문이자 실천학문의 성격이 강한 학문분야<sup>1)</sup>이다. 생활과학의 사회적 실천은 생활과학의 학문적 전문성, 즉 과학화 및 전문화를 토대로 하여, 가정생활이 사회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생활과학의 발전과정은 생활과학의 하위분과 학문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진보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활과학(가정학)의 구심점 약화에 따른 정체성 문제가 지속적인 과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활과학(가정학)의 사회적 실천문제를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sup>2)</sup>되었는데, '가정학의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가정복지'라는 재개념화를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문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현장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가정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대한가정학

1) 2000년대 이후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주제를 살펴보면, 가정학전문가의 사회서비스 실천(2000), 미래의 여성, 가정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2001), 지속가능한 삶과 생활환경(2001), 세계화시대의 생활문화(2002), 주5일근무제와 생활문화의 변화(2002), 양성평등사회의 생활문화(2003),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가정정책과 실천방안(2004), 유비쿼터스와 생활과학(2005), 생활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건강(2005) 등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과학과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과제를 짚어보는 학술적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 대한가정학회 48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가정학과 가정복지"(유영주, 1995)라는 주제로 가정학의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가정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이어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1999)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한국가정관리학회 주최로 열렸다. 이후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임정빈 외, 1997)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회 내에 '가정복지실천특별위원회'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원동력을 토대로 한국사회 가정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교육, 가정상담, 가정문화,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구축을 서비스 제공방식의 주요 축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아이돌보미 연계시범사업, 한부모맞춤형지원서비스 등-들도 확대되고 있다. 이 중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의 건강성 증진과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정교육, 가정문화, 정보제공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본 논의의 주제인 사회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영역은 가정(가족)생활교육 분야<sup>3)</sup>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생활과학의 사회적 실천방안 중 하나인 사회교육을 통해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생활과학의 주요한 실천현장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의 사회교육적 측면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II. 생활과학의 실천방안으로서의 사회교육

### 1. 사회교육의 등장배경

과거 산업화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이 사회와 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거의 대부분 충족시켰지만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빠른 사회변화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 첨단기술의 경쟁적 발전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차원에서 학교교육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생존, 더 나아가서는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 동안 부지런히 학습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체제의 도래로 경제적 경쟁력과 고용가능성의 증진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인적자원의 질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화 및 정보화로 인해 학습격차,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배제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3)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개념 논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되는 개념을 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란 개념에는 인간의 일상적 삶, 즉 생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가정교육'으로 칭할 경우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등 교육의 장으로 구분하는 '가정교육'과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본 고에서는 '가정생활교육'이라 칭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과학분야의 교과목 중 '가족생활교육론'이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이므로 두가지 용어를 함께 쓰하고자 한다.

학습은 더 이상의 개인적 문제로 남겨져 있을 수 없게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① 범국민 평생학습운동을 통한 학습참여 확대 ② 성인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등교육기회 제공 ③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을 중점추진내용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2. 사회교육의 개념과 원리

사회교육의 개념은 평생교육의 개념으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는데, 평생교육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교육이념으로서 유아교육·청소년교육·성인교육·노인교육 등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활동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등 각기 다르게 전개되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적 교육활동의 수평적 통합을 위하여 "삶이 곧 교육"인 "학습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송병순·이영호, 2000).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근거해 볼 때, 사회교육이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제외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교육의 주요 대상자는 성인이며, 제도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학교교육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사회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살펴보면 자기주도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상호학습의 원리, 현실적응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먼저 자기주도성의 원리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의 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둘째, 다양성의 원리는 이질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취를 위하여 때와 장소, 그리고 학습참여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유롭고도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상호학습의 원리는 학습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여러 가지 집단과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현실적응의 원리는 교육내용이 지역적, 시대적, 사회적 현실생활의 관심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역할수행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속성의 원리는 계속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개발, 제공해야 하며, 여섯째, 효율성의 원리는 다양한 방법의 도입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김경희, 2003).

## 3. 생활과학의 사회교육분야 : 가정(가족)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가족문제는 개인의 성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므로 가족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가족생활교육은 가족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예방차원에서 개인의 성장발달과 가족생활과 관련된 제반 기술 및 지식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생활교육이란 유아에서 노인까지 개인과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및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평생교육<sup>4)</sup>이다(정현숙, 2005;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자료집, 2006에서 재인용).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문제해결, 문제예방, 잠재력 개발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족생활교육의 주요영역 구분은 다양하지만, NCFR(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의 범주와 영역을 9개 주제영역-가족과 사회, 가족상호 역동성, 인간성장과 발달, 인간의 성, 대인관계, 가족자원관리, 부모교육 및 지도, 윤리, 가족법과 가족정책-으로, 그리고 연령범위는 아동, 청소년, 성인기, 성인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족생활교육의 주요 내용은 가족체계의 인적 하위체계, 즉 가족구성원 개인의 성장과 발달, 가족관계 증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음으로는 생활과학의 실천현장이자 사회교육의 장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 살펴보겠다.

####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목적과 방향<sup>5)</sup>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정정책과 건강가정사업을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의 장이자 전달체계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목적과 방향은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및 방향과 궤도를 함께 하므로,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문제의 예방

4)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의 영역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평생학습센터 전자도서관, 2006).

영역1 :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및 교양교육

영역2 : 지식,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기술교육

영역3 : 개인적인 취미 여가교육

영역4 : 시민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교육 : 가정생활교육, 시민생활교육, 인간관계교육 등

영역5 : 기타 학교교육 외의 조직적 교육활동 : 국제이해교육, 전통문화이해교육 등

이상의 분류와 같이 가정생활교육은 시민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주요교육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 부분의 내용은 200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북(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2006)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 가족문제의 감소와 위기치료
- 가족의 잠재력과 자립능력 개발
-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충족
- 지역사회와의 연계
- 가정과 사회의 통합

#### ◆ 건강가정사업의 방향

- 보편성 : 요보호가족 중심 지원 ⇒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 평등성 : 권위적 가족관계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향상
- 사회성 : 개별 가족의 부담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 통합성 : 단편적·개별적 정책 ⇒ 통합적 기획·조정기능 강화
- 포괄성 : 예방과 돌봄과 치료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전문성 : 건강가정사업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
- 예 방 : 교육 및 문화운동을 통한 가족문제의 예방기능 수행
- 연 계 : 센터상호간 또는 센터 및 관련기관과의 합리적인 수평적·수직적 연계 관계 수립
- 조 정 :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의 조정 역할·사례관리자의 역할

## 2.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 건강가정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영역별로 상담, 교육, 문화,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가족지원서비스 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영역에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본 논의에서는 사회교육(평생교육) 측면에서 생활과학의 실천성 제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교육분야에 해당되는 건강가정 교육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거조항 및 이에 따른 가정교육사업의 내용, 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법적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하며(법 제19조 제2항),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 32조).

#### 1. 결혼준비교육

- 2. 부모교육
- 3. 가족윤리교육
-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사업영역	운영가능한 사업	관련 법조항
건강가정교육,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준비교육</li> <li>■ 부모교육</li> <li>■ 가족윤리교육</li> <li>■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li> <li>■ 부부교육</li> <li>■ 양성평등 가족교육</li> <li>■ 은퇴자를 위한 가정생활적응 교육</li> <li>■ 가정생활설계 교육</li> <li>■ 맞벌이가족을 위한 직장-가족 양립 지원 교육</li> <li>■ 도·농가정의 화합 및 협동 교육</li> <li>■ 세대통합 교육</li> <li>■ 노부모-자녀관계 강화 교육</li> <li>■ 소외가정, 위기가정, 요보호가족을 위한 교육</li> </ul>	제19조, 제32조 등

나. 사업목표

- 가족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교육기회 제공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구현
- 가정의 자립과 협동, 능동적 기능의 강화
- 균형있는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정생활의 복지 향상

다. 기대효과

- 가정생활의 심리적 문제와 갈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극복할 수 있다.
- 가정문제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후 대처능력을 증진하여 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 기능을 강화한다.
- 다양한 주제의 가정생활교육으로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가정의 건강성이 증진될 수 있다.
- 가정의 잠재된 자원을 스스로 개발·활용하여 보다 균형있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라. 사업 내용

각 센터에서는 부부교육과 부모자녀교육 내용을 기초영역으로 하되 이에는 가족윤리와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외의 다양한 가정을 위한 교육과 기타 가족생활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센터 고유의 사업운영 환경과 해당지

역 가정의 특성, 그리고 주요대상과 그들의 생활주기를 고려해 각 센터의 특화사업을 병행한다.

- ▶ **부부교육**
  - 예비부부를 위한 부부생활 준비교육
  - 부부관계 증진교육
  - 중년기 이후 부부를 위한 노후생활설계교육 등
- ▶ **부모자녀교육**
  -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
  - 부모역할준비교육
  -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등
-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 이혼위기 가족지원을 위한 생활교육
  - 한부모 가족을 위한 통합 생활교육
  - 재혼가족을 위한 교육
  - 입양가정을 위한 생활교육
  - 독신가정을 위한 생활교육
  - 장애인 가정을 위한 생활교육
  -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적응교육
  - 실직가정을 위한 생활교육 등
- ▶ **기타 생활교육**
  - 의생활 교육
  - 식생활 및 영양관리 교육
  - 주생활 교육
  - 세대통합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등

교육사업 분류	프로그램의 예
부부교육	행복면허 취득하기, 예비부부 결혼교실, 부부성격차이 극복하기, 따로 또 같이 행복나누기
부모자녀교육	행복한 임신 건강한 태교, 행복한 엄마아빠되기, 내 아이 마음읽기, 내 자녀 멘토되기
다양한 가족의 생활교육	이혼위기 부부적응교육, 한부모 가족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행복한 입양 가족 이루기, 새누리 스위트홈 만들기, 농민을 위한 평등가족 실천교육
기타 가족생활교육	주부 커뮤니티 리더 프로그램(가정경제생활교육), 멋진노후 당당한 내인생(중년기 노후생활설계교육), 새롭게 시작하는 나 그리고 우리

### 3.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사업의 현황

건강가정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은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다양화되고 있으며 참여인원 역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를 통한 현황 파악에는 자료 제한상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건강가정 교육사업의 현황을 먼저 2005년의 사업실적<sup>6)</sup>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06년에는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다양화되고 발전되고 있는가에 관해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05년 교육사업 실적을 가족생활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가족생활주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가족생활주기	교육사업 영역	프로그램 수(%)	연인원(%)
미혼기	결혼준비교육	11 (6.6)	888 (5.7)
	기타	1 (0.6)	22 (0.1)
신혼기	부부교육	1 (0.6)	45 (0.3)
자녀의 아동 및 청소년기	경제/소비자 교육	8 (4.8)	932 (6.0)
	부모교육	40 (24.1)	2,973 (19.0)
	부모자녀관계교육	10 (6.0)	712 (4.6)
	성교육/성폭력예방/양성평등교육	4 (2.4)	1,756 (11.2)
	학습/진로지도	5 (3.0)	1,070 (6.8)
	의사소통	2 (1.2)	211 (1.3)
	기타	9 (5.4)	1,101 (7.0)
중년기	노년기준비교육	7 (4.2)	302 (1.9)
	기타	1 (0.6)	74 (0.5)
노년기	가족관계/건강 등	3 (1.8)	352 (2.3)
	소비자교육	1 (0.6)	295 (1.9)
	손자녀 양육	1 (0.6)	13 (0.1)
전체	부부교육	9 (5.4)	631 (4.0)
	건강/식생활	6 (3.6)	621 (4.0)
	경제/소비자 교육	4 (2.4)	306 (1.9)
	노부모관계/고부관계	2 (1.2)	260 (1.7)
	기타	41 (24.7)	3,073 (19.7)
계		166 (100)	15,637 (100)

출처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경기 남양주, 안산시,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등 총 16개 센터가 설치·운영이 되었다. 이 중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센터는 서울 용산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경남 김해시, 전남 여수시, 충남 천안시 총 6개소이며, 나머지 9개소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건강가정 교육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의 아동 및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사업(46.9%)이며, 그 중에서 부모교육(24.1%)을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분류상 전체의 기타 프로그램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모자녀관계교육, 손자녀양육, 의사소통교육, 노부모/고부관계교육 등 가족구성원의 역할 및 관계증진을 위한 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녀양육과 관련된 교육내용-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교육, 손자녀양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제/소비교육, 건강/식생활교육, 노년준비교육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사업의 다양화 측면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였던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 중에서 한부모가족 대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가족형태에 따른 사업내용

구분	단위 프로그램
조손가족	조부모 양육기술향상 집단프로그램
한부모가족	분노조절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가족캠프/자조모임
북한이탈가족	내게 맞는 이미지 making/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국제결혼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정	국제결혼 예비부부교육/생활교육/ 외국인가정과 명절문화 체험
장애아동가정	예비학부모교실/부모성교육 등

출처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2006년에는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지원의 센터가 2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지원 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 10월 현재 37개소(중앙센터 제외)가 설치,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센터 수의 확대에 힘입어 프로그램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점차 알려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안정됨에 따라 이용자의 수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추진 실적('06년 7월말 기준)7)

합 계	사업영역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106,959	28,147명(735건)	12,685명	66,127명(375건)

출처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보고자료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2006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sup>8)</sup>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모든 센터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사업내용은 부모교육인데, 그 내용과 사업방식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상 측면에서 볼 때,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아동가정, 입양가정, 이혼경험가정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부모교육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부모교육은 대부분 여성, 즉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아버지교육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센터 공통사업<sup>9)</sup>의 하나로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에 따라 활성화된 측면이 강하지만, 지금까지 가정생활교육 대상자로는 소외되어온 남성-남편 또는 아버지-을 대상으로 편입한 점에서, 나아가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현재 많은 부모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많이 연계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으로서, 대표적으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지역내 20여개 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남성대상의 아버지 교육의 경우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이 가장 큰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기업이나 기관, 일터로 찾아가는 교육<sup>10)</sup>을 실시하고 있다.

7) 2006년 사업추진실적 집계에는 사업영역 중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 수만 집계한 것으로서, 아이돌보미 연계시범사업, 육아휴게소(육아광장) 이용자는 집계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외 정보제공 등의 대상자 등도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8) 200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특성은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이승미, 2006)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9) 2006년도 공통사업은 '예비부부교육',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이혼전후 가족상담', '가족봉사단',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5개 사업내용인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공통사업을 위해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다.

10)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처음으로 강북구 KT지사와 연계하여 아버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KT지사와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롯데마트(천안시 센터), 지역사회내 중소기업 대상(울산시 센터), 지역내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의 여건에 적합한 대상기관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영역과 조직구조는 교육, 상담, 문화영역으로 구분되어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세가지 사업영역-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의 통합적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즉 가족캠프의 경우 대상집단별 교육과 상담,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 외국인 근로자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사업으로 한부모자조집단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다.

다섯째,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족유형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을 들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는 결혼이민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민자들의 적응의 어려움(언어소통과 문화적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 등), 이민자녀의 언어지체현상과 따돌림문제, 가부장적 가족문화 및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들의 적응과 생활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부정책이 마련되면서 더욱 확대된 것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 차원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한글교육, 개인상담, 정서적 지원사업-자조모임형성,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등의 멘토링사업 등-과 더불어 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역의 21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중 6개<sup>11)</sup>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동시에 운영함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의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그 외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한글교실,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업내용과 운영방식의 특징은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교육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IV.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생활과학의 실천전략 모색 : 사회교육(평생교육) 측면에서

현재 한국사회는 가족관련 현상과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과거와 같은 요보호가족중심의 잔여적, 사후치료적 접근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SBS에서 실시한

과 연계를 맺고 있다.

1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함께 지정되어 운영되는 곳으로는 서울시 동대문구, 울산시, 익산시, 김해시, 여주시, 대전광역시(미개소) 6개소이다.

조사(2006)에서 행복의 조건을 질문한 결과 3순위는 좋은 직장, 2순위는 건강, 1순위는 화목한 가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화목한, 즉 건강한 가정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보고서의 의하면 현재 우리국민들의 경우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47.3%에 그치고 있으며<sup>12)</sup>, 이는 OECD국가의 삶의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 즉 '10년 뒤 더 불행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2%로 더욱 비관적으로 나타나 현실과 욕구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및 사회문화조성, 가정생활의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역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삶과 밀착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정문제의 해결과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생활과학(가정학)의 학문적 성과를 사회에 기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따라서 생활과학(가정학)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사회교육(평생교육)적 측면에서-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가정(가족)생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측면에서

### 가. 가정생활의 통합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가정학에서 가정생활은 생활주체인 인간(집단)이 의식주 등의 생활재를 사용하고 생활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다양한 역할과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모수미 외, 1991) 규정하고 있다. 즉 가정생활의 본질은 인간 하루하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상적·세대적 재생산활동으로서(조희금 외 2002), 가족구성원의 매일의 인간적 삶의 실현을 위한 욕구충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 영역은 가족내 구성원간의 소통과 관계증진, 정서적 지지, 자녀의 출산과 양육 등의 인적 측면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소득획득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소비 등의 의식주 소비생활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가정생활의 통합적 측면에서 볼 때, 가족체계 내 인적 하위체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가족생활교육 영역은 광범위한 가정생활영역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재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부록 1> 참조)<sup>13)</sup>에서도 프로그램의 편중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이 교육수요자들

12) 미시건대학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팀의 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세계 59위로, 우간다와 비슷한 3등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SBS여성가족부, 2006).

13) 본 논의에서는 대한가정학회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만을 포함하였으므로 가정학전공자들이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보

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경제교육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 나. 교육효과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선정에 있어 교육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제안한 성인교육의 원리 중 현실적응의 원리를 고려해 본다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보다는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고 학습자가 자신의 역할이나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용상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과제이다. 즉 아무리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강사의 일방적인 내용전달방식으로는 사회교육(평생교육)의 성격상 효과적일 수 없다. 따라서 성인교육 원리에 입각하여 상호작용, 참여, 체험, 영상물 활용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내용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대상자 모집이나 수요자들의 근접성문제, 시간상의 제약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제공<sup>14)</sup>-간단한 리플렛 제작, Tip중심의 정보지 등의 방법도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의 교육도구나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sup>15)</sup>이 필요하며, 새로운 교육매체나 도구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제공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이 예방차원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구성하거나,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부분은 현장에서 실천전문가들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체계화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 역시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다양한 구성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이 자기주도성에 입각할 때 활성화될

다 자세한 현황은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김승권 외, 2003),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한 건강가정 프로그램'(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5)을 참고하길 바란다.

14) 경희대학교와 함께하는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내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햇빛통신"의 정보제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상인들이 이제는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친숙해진 상인들에게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15)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의 경우 초급반에서 교재와 함께 아동용 낱말카드를 활용하기도 하며, 상호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지구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내용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라. 연구와 실천현장간의 상호소통과 연계 :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위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현실과 욕구를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다. 물론 많은 연구자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하는 설문조사 방식을 넘어서 대상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밀도있게 읽어내는 질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전문적이면서도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뿐 아니라 사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연구와 실천현장간의 상호소통과 연계가 활발하고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와 실천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와 실천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예를 들면 학회 학술발표의 세션배분,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박람회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전문가 측면에서

가정생활교육이 전문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진행방식, 그리고 교육매체 및 도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가정생활교육의 가장 중요한 성패는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력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정생활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성과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의 세부적인 과제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는 자격요건이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제로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과목 이수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가정생활교육의 성격상 보다 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강사는 많은 경력의 전문성을 담보한 외부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sup>16)</sup>이다. 따라서 전문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

16)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 종사자 4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직책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센터에서 외부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수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낮은 임금으로 인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종사자로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큰 실정이다.

기 위해서는 이론적 훈련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내용 차원에서 가정생활 이해에 필요한 기존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교육기법, 매체활용방법에 관한 교과목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과목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효과적 진행능력의 함양을 위해 단계별 현장실습 방안-프로그램의 보조진행자, 프로그램의 보조강사 등의 일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학의 전공운영의 특성상 한 분야로만 많은 교과목을 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특강이나 학생들의 동아리를 활용한 학습기회 제공, 대학원 과정에서의 다양한 세부전공 트랙제 운영 등 학과운영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나.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

가정생활교육분야의 전문강사 양성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전문강사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강사에게 학회 차원의 자격을 부여<sup>17)</sup>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력 풀을 구성<sup>18)</sup>하여 지역센터 뿐 아니라 실천현장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리방안도 향후에는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강사 확보 문제와 관련해 볼 때, 기존에 배출된 생활과학 전공의 많은 현장활동가들의 인력 풀을 확보하고, 이들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3. 사회교육 실천의 장 측면에서 :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성화

우리사회에는 이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센터가 있으며, 시민단체 중심의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과학의 사회교육적 실천의 장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평생교육측면에서 생활과학의 실천성을 증진시키는데 일차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 기관과의 협력부분을 정보와 프로그램의 공유, 그리고 전

17)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는 건강가정사 자격제도는 경력이나 전문성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가정사 자격제도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가정학실천특위 내 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급을 구분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전문 건강가정사'-교육정공, 상담전공 등-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18) 현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문강사 풀을 구성하고 있지만, 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는 이미 '가족생활교육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 또한 구성된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의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강사의 공유로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면 상호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성격이나 특성을 지니는 기관과는 연대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과학분야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전문강사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지속적인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 V. 글을 마무리하면서

생활과학의 사회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의에서는 사회교육(평생교육) 측면에서,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분야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를 제안해 보았다. 이제, 이와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사회적 실천을 위한 전문가 양성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짚어보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회교육 측면에서 가정생활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생활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문제해결, 문제예방 및 잠재력 개발이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가정생활교육이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있다고 본다면,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이란 가정생활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표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어느 정도의 전형적인 가족의 모델을 상정하는 것은 아닌가-물론 이것이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이라 할지라도-, 또한 개별대상적 접근과 달리 가족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어려움, 즉 개인의 성장과 가족의 안정성간의 갈등, 가족 구성간의 요구의 갈등 시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해 나갈 것인가, 일견 상호모순되고 배치되는 다양한 가치의 충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답을 구해야 하는 질문들이 산적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구해질 수 없으며 어쩌면 영원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반문해보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의 문제제기는 가정생활교육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건강한 가정의 구현, 즉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가정생활의 장에서 적용가능하고 실천가능한 내용-관계증진을 위한 의사소통기법,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침, 합리적 자원관리를 위한 구체적 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가정생활교육의 예방적 특성으로 인해 가정생활교육 서비스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가정생활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입증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사회적 자원의 제약 하에 가정생활교육 서비스의 사회적



정당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예방차원의 적은 자원 투자가 향후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등- 향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책무성 확보와 관련하여 생활과학 전공자들이 사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회적 흐름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한 실천성 담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개별연구자(전공자)들이 각자의 세부전공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이와 함께 개별 연구자 각자의 다양한 연구와 경험이 서로 소통되고 공유되는 장과 여건의 성숙할 때, 생활과학의 사회적 실천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교육인적자원부(2004). 평생교육백서.
- 김경희(2003). 가족생활 만족을 위한 성인평생교육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호(2002). 시민사회 주도의 지역 평생학습문화 형성 방안. 평생교육학연구 8(1), pp.21-40.
- 김승권·정민자·이승미·박세경·이종은(2003).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남(2000). 미국의 생활과학 전문가의 사회서비스 실태.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대한가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hea.or.kr>
- 모수미 외(1991). 가정학원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박경옥(2000). 가정학 전문가의 사회서비스 : 일본의 실태.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송병순·이영호(2000).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 SBS·OECD 공동기획(2006).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 여성가족부 후원.
- 이승미(200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이연숙(1998).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서울:학지사.
- 정금주(2000). 가정학의 사회서비스:한국의 실태.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조희금·송혜림·공인숙·이승미·이완정·박혜인·조재순·김선미·최연실(2002). 가정생활복지론. 서울 : 신정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5).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한 건강가정 프로그램 자료집.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서.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건강가정지원센터 월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자료.

〈부록 1〉

1.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특위 개발 프로그램(2004년)

- 예비부부 및 결혼초기부부 교육프로그램
-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생활설계 프로그램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2.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특위 전문위원 보유 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 가정폭력 집단 프로그램 보급용 CD제작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책자 제작
-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가족상담교육프로그램
- 초중등교원을 위한 성교육 일반 연수

<부모교육 프로그램>

-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 유아기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 십대자녀를 위한 진로, 학습지도 프로그램
- 부모교육프로그램 : 좋은 부모, 유능한 아이

<예비부부 및 신혼기부부교육 프로그램>

- 예비부부를 위한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 교과과정으로써의 혼인준비교육프로그램

<부부교육 프로그램>

- 행복한 부부되기 적응 워크샵 및 책자 개발
- 부부행복의 첫걸음
-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
-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 좋은 부부, 아름다운 가족
- 부부대화법
- 농업인 부부평등교육 프로그램
-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중/노년가족 대상 프로그램>

- 노년기 행복찾기 프로그램
-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예비노인교육 프로그램
-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 프로그램
- 치매노인 부양자 치료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 한부모 여성가장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 프로그램
- 알코올 의존 환자 가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 준비된 재혼, 또 다른 행복
- 행복한 우리 가족, 자랑스러운 나(한부모가족 대상)
-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가족 전체 대상 프로그램>

- 가정생활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책자 제작
- 현실요법에 근거한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 행복한 가족 캠프

<시간관리 프로그램>

-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시간관리프로그램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 웹기반 초등학생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 유아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영양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보건소 모자영양교육자료, 어린이용 교육자료
- 보건소 지역주민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주거/주생활 관련 프로그램>

- 지역사회노인을 위한 주택문제 상담 메뉴얼화 교육
- 건강주택진단교육프로그램

<유아 및 아동대상 프로그램>

- 어린이 마음공부
- 마음의 힘 키우기(초등학교 46학년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 사이좋은 친구 함께한 우리(유아 신사회적 기술향상 프로그램)
- 영유아 사회 및 경제생활 보육 프로그램